

패션비즈니스 제26권 4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6,
No. 4:1-17, Sept. 2022
[https://doi.org/
10.12940/jfb.2022.26.4.1](https://doi.org/10.12940/jfb.2022.26.4.1)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Kim
Tel : +82-43-261-2783
Fax : +82-43-274-2792
E-mail : coco7@cbnu.ac.kr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를 통해 본 Münn의 패션 디자인 고찰

임보연* · 김지영†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of MÜNN from the Perspective of Defamiliarization

Boyeon Lim* · Ji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words

defamiliarization,
Viktor Shklovsky, Münn,
Russian formalism,
fashion design
낯설게 하기,
빅토르 쉬클로프스키, 뮌,
러시아 형식주의, 패션디자인

Abstract

In the fashion industry, the demand for new perspectives to express creativity has always been high. Expression of new perspectives allows creative ideas to emerge, thereby breaking away from habitual and familiar percep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how the theory of defamiliarization is being applied in fashion design by the brand Münn, which claims defamiliarization as a design philosophy. The study examined the concep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Viktor Shklovsky by literature review and deriv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defamiliarization theory for fashion design analysis based on studies that used defamiliarization in other fields. Furthermore, after analyzing Münn's collection, we found how the main characteristics of defamiliarization derived from reviews were expressed in Münn's designs. The defamiliarization in Münn's collection was first, 'breakaway from stereotype' appeared through re-recognition of perception and unexpected use of heterogeneous materials. Second, 'distortion and analogy through image' was revealed through the East and West clothing-making methods, which broke away from the stereotype of image and the juxtaposition and cultural reconstruction of details. Third, 'transition of viewpoint' was shown as an avant-garde sense through the conversion of usage purpose of design, material, or items in which subjects and objects were converted with conceptual design and material or silhouette.

I. 서론

인간은 습관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워지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형화된 질서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지니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의 다양한 사조들은 과거 사조들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여주는데, 이 비판의 배경은 새로움에 대한 정신적 욕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톰 피터스(Tom Peters)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래사회는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주장하였다(J. Cho, K. Cho, & Hong, 2016). 창의성이 중시되는 아이디어 기획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볼 때, 보편적인 것은 식상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이 요구된다. 창의적 사고는 발상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나 느낌, 감정, 직관을 통해 나타나게 되며, 창의적 사고의 산물들은 모든 분야를 아울러 적용될 수 있다(Robert & Michele, 1999/2007).

창의성은 이전에 없던 새롭고 낯선 감각과 연관된다. 창의적 표현을 위해서는 익숙한 것에 전혀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주어 대상을 ‘낯설게’ 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낯선 것은 낯익은 것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보았다. 사람은 익숙해진 상황을 먼저 지각하고 처음 대하는 상황으로부터 낯설음을 느끼게 되므로 낯설과 익숙함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다(Lee, 2018). 낯선 것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는 새로움이 있으며 긴장감과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낯설게 하기는 창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롭고 창의적인 관점을 위해 낯설게 하기는 문학이나 건축, 광고, 디자인 뿐 아니라 문화 현상의 해석이나 교육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착시현상을 중심으로 한 미술기법인 트롱프뢰유(trompe-l'oeil)와 20세기 후반을 풍미한 문화운동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도 낯설게 하기와 연관성이 있다. 낯설게 하기를 본격적으로 이론화시킨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연극에서 소격효과, 즉 거리두기를 통하여 감정이 입을 막고 비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Lee, 2014), 러시아 형식주의의 빅토르 쉬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y)는 습관화, 자동화되었던 인식에서 벗어나 낯설게 할 때 사물의 깊이 있는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이론 중 쉬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브레히트는 낯설

게 하기의 개념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며, 본인의 생산과정과 사회의 생산과정을 동시에 드러내는 절차로 표현한 반면, 쉬클로프스키는 심미주의적 측면에서 기존의 형식을 다른 각도로 관찰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로써 낯설게 하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 분석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쉬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주로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미학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Kim, 2017; Gwon, Kim, & Lee, 2001; Ham, 1998), 광고(B. Kim, 2010), 문화 콘텐츠(Choi, 2021), 건축(Hwang & Lee, 2001; Lee, 2011) 등의 분야에서도 낯설게 하기 이론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는 낯설게 하기 이론을 토대로 한 믹스 앤 매치 스타일이 패션과 예술에 나타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연구(Myong, 2005)나 매장 연출의 차별화 전략으로 낯설게 하기 이론을 접목시킨 연구(Lee, 2011) 등이 이루어졌으나, 디자인 발상의 수단으로 낯설게 하기 이론을 고찰하고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패션 분야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낯설게 하기 이론을 중심으로 디자인 창작의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표현법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이너가 직접 아이디어 발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제시한 바 있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를 통해 패션 브랜드 뮌(Münn)의 디자인에 나타난 낯설게 하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여 디자인 발상의 표현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디자이너 한현민이 이끌고 있는 뮌은 낯설게 하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옷을 추구하며, 기본은 깔려 있되 기본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신념으로 의복을 만드는 관습과 과정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면서 입는 사람에게 옷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Won, 2016). 본 연구는 크리에이티브 감각을 지닌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인문학적 이론과 접목시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인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아이디어의 창의적 발상과 전개와 실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낯설게 하기

인간은 익숙한 것에 대해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다가도 이

내 그 편안함에 싫증을 느끼며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된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없던 것을 만들거나 찾아내는 것으로 곧 창의성과 연결된다. 낯설게 하기는 예술작업이 표현하는 대상, 주제, 질료(material)를 지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움을 창출해 낸다. 이처럼 낯설게 하기는 익숙함, 고정관념에서의 탈피를 야기하기 때문에 창의성의 문제로 귀결되며,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미술 기법이나 담론과 함께 낯설게 하기를 주요 개념으로 다룬 브레히트와 쉬클로프스키의 이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미술 기법으로는 눈 속임 회화를 뜻하는 트롱프뢰유(trompe-l'oeil)를 들 수 있다. 트롱프뢰유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에 표현된 대상물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마치 현실의 것처럼 느껴지게 착각을 일으키는 기법을 말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공간감을 무시하고 환상을 묘사하는 기법으로, 근세 네덜란드에서는 정물화의 변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Kim, 2010). 트롱프뢰유는 실제와 허상을 교란시키고 보는 이에게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낯설게 하기와 맥을 같이 하며,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나타난다. 초현실주의는 경험의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을 완벽하게 결합하였고, 데페이즈망(dépayement)을 통해 상상력으로 인한 이미지의 재생산에 초점을 두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전환, 병치, 합성 등에 의한 오브제의 결합과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반 논리적 결합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출하였다(Jang & Hur, 2009). 이 오브제의 결합 방식은 일반적 관계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낯선 시각적 충격을 주는 트롱프뢰유로 응용되어 나타났다. 트롱프뢰유는 실제처럼 착각하게 하는 허상에 대한 속임수를 보는 사람이 알아차릴 때 작자의 의도가 완수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Ahn & Chung, 2011). 즉 눈속임을 통한 의외성으로 인해 재미를 주는 각성 이론(Jang & Lee, 2018)이자, 대상에 대한 혼란과 착각을 통해 의외적 해석과 낯선 감정을 유도하는 기법이라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서구 문화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도 낯설게 하기와 연관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불변의 진리로 여겨져 온 실재(reality)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실재의 결여, 실재의 다원화를 야기시켰다(Kwon, 2003).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이هاب 핫산(Ihab Hassan)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 문학의 엄격한 구분에 대한 탈경계화,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 등에서 시작하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확성, 단편화, 탈경계화, 이중혼합 등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Kim, 2012). 모더니즘이 개성 대신에 신화와 전통 등 보편성을 중시했고(Ahn & Chung, 2011), 난해하고 추상적인 기법으로 대중과 거리를 가졌던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과 친근하면서 모더니즘의 거장을 거부하는 다양성의 실험을 통해 근대주의로부터 벗어난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운동이었다(Ahn, 2016).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시대의 고정된 경계를 허물고 불확실성과 상대성의 가치를 중시하며 해체와 개방, 혼종 등을 표방하였고, 그 영향에 의해 탈중심화되고, 절충적이며, 다원적인 문화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서 강조된 실재의 다원화와 탈경계의 개념은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낯선 접근을 유도하며 문화예술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낯설게 하기의 개념을 이론화한 브레히트는 ‘소격효과(alienation effect, verfremdung)’를 주장하면서 이를 연극에 적용시켰다. 소격효과는 소외, 이화(異化), 생소화, 거리두기(distanciation), 낯설게 하기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왔다. 브레히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감정이입에 의한 카타르시스 효과라는 전통적 연극기법을 비판하면서, 관객이 극에 몰입하는 대신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적극적으로 현실 인식과 변화에 참여하도록 하였다(Lee, 2014). 그는 감정이입이 인간의 위대한 특성인 비판 능력을 상실시킨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치나 사회 현안을 연극과 결합시켜 관객의 비판적 인식을 추구하는 서사극이라는 새로운 연극형식을 창안하였고(T. Kim, 2006), 소격효과를 서사극의 필수요소로 제시하였다. 브레히트는 비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술에 있어 작가의 적극적 개입, 즉 지적 조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G. Kim, 2006). 그가 주장한 ‘거리두기’는 예술과 현실을 구별하게 하며, 무대 위의 사건이 현실이 아닌 인위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거리두기를 위해 관객이 관찰자적이며 비판적 태도를 갖추는 소외효과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 어떤 성격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곧 익숙한 것, 분명한 것을 제거하고 그에 관해 놀라움과 호기심을 일깨우는 것이다(T. Kim, 2006). 이와 같이 브레히트가 제시한 낯설게 하기는 예술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현실 비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은폐된 현실의 진실을 인식하도록 돕는다고 보았다(Lee, 2014). 즉, 거리두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종합적인 이해, 이를 통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브레히트가 대상과의 거리두기에 의한 낯설게 하기로 비

관적 인식을 도모하였던 것에 비해,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빅토르 쉬클로프스키는 습관화된 인식에서 벗어난 인식의 회복을 위해 낯설게 하기를 주장하였다. 인간은 일상에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익숙해지면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인식이 습관화되면 대상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는데, 쉬클로프스키는 이를 ‘자동화(automatism)’라 표현하였고, 습관적 인식에서 벗어난 탈자동화(de-automatism)를 통해 인식을 회복하고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Lee, 2014). 일상화된 규범을 부정하고 관습적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경직된 형식의 틀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낯설게 하기라고 볼 수 있다(Suh & Kim, 2011). 예술은 일반화된 인식의 틀을 깨고 낯설게 하여 익숙한 대상에 대한 참신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기법이나 이론들을 살펴 보았다. 미술 기법의 하나인 트롱프뢰유는 눈속임이라는 착시현상을 통해 낯선 감정을 유발하며,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서는 해체와 혼종, 탈중심, 탈경계 등을 통해 낯선 접근과 새로운 가능성,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격효과를 주장한 브레히트는 감정입에 반대하며 극중 인물과 극적 장치에 대해 배우와 관객의 거리두기를 요구하였고, 쉬클로프스키는 자동화된 인식에 반대하여 낯설게 하기를 주장하였다(Lee, 2014). 이처럼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기법이나 이론들은 각기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익숙한 대상이나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낯설게 하기 관련 이론 중에서 뮌의 한현민 디자이너가 디자인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이론이 출현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 러시아 문학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0년대 이전의 사실주의에서는 언어를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고 형식을 내용 전달의 수단으로만 여겼으나, 상징주의는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을 부정하였고 언어의 암시성을 중시하며 철학적, 종교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미래주의는 시 언어라는 기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시를 창조한다는 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닌 자유로운 언어 활동의 기술이라고 여겼다(Gwon et al., 2001).

미래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형식주의는 특히 문학에서 시의 세계관보다는 그 양식과 유형에 주목하며 시를 구성하는 단어 자체를 정당한 대상으로 보고 작품의 구조 분석에 대해 탐색하였다(Lee, Marion, & Reis, 1965/1986).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비평가 빅토르 쉬클로프스키는 그의 논문 『언어의 부활(1914)』에서 언어를 상징적 의미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객관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Gwon et al., 2001). 형식주의자들은 시를 구성하는 단어를 대상의 대리물이 아닌 정당한 대상으로 보았고, 작품의 창의성과 미학적 왜곡, 새로운 표현법에 대한 탐색을 옹호했다(Lee, Marion, & Reis, 1965/1986). 문학 작품의 세계관보다는 작품에 사용한 양식과 그 유형의 고찰에 힘썼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구조 분석을 최초로 개진하였다. 이처럼 형식주의자들은 문학 작품의 형태와 구조를 강조하였고, 문학적 장치에 의해 어떤 심미적 효과를 생산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낯설게 하기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Tzvetan, 1966/1997).

낯설게 하기의 이론은 1917년 쉬클로프스키의 논문 『기법으로서의 예술(Art as Technique)』에서 예술의 특징적 방법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제시되었다(Kim, 2012). 낯설게 하기의 영어 표현은 ‘defamiliarization’으로 ‘familiarization’에 분리, 제거의 의미가 있는 접두사 ‘de’를 붙여 ‘친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이란 뜻을 가지며, 일상화된 대상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문학적 수법을 말한다(“Defamiliarization,” n.d.). 즉 낯설게 하기는 친숙하거나 반복되어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쉬클로프스키는 상징주의자 알렉산더 포쩨브냐(Alexander Potebnya)가 주장한 ‘이미지에 의한 사고’를 비판하며 ‘형식’이라는 일반적 개념에서 형식의 새로운 의미 속에 있는 ‘기법의 개념’과 나아가 ‘기능의 개념’까지 전개시켰다(Gwon et al., 2001). 포쩨브냐는 ‘시는 이미지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는 이미지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쉬클로프스키는 이미지는 시인들이 부여하지만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하였다(Shklovsky, 1917/1965). 다시 말해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이미지는 변화하지 않으며 시인들은 이미지를 창조하지 않고 그 이미지를 차용한다고 쉬클로프스키는 주장하였다. 그는 이미지란 비유법, 반복법 등과 같이 작품을 구성할 때 도입하는 수단이자 시어의 기법 중 하나일 뿐 시의 질료는 언어임을 강조하였다(Gwon et al., 2001).

포쩨브냐의 이미지론은 쉬클로프스키에게 예술의 특성과 지각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쉬클로프

스키는 그의 논문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삶의 느낌을 주고 사물을 느끼기 위해, 돌을 돌답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Shklovsky, 1917/1965). 이처럼 그는 예술의 목적은 새로운 지각을 시각화로 제시하는 것으로 사물이 가공되는 것을 체험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즉 예술기법은 사물을 낯설게 하고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hklovsky, 1917/1965). 예술은 의도적인 인간 활동의 산물이자 기능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인식의 틀을 깨고 인식에 쏟는 시간을 지연시킬 때 더 깊은 이해로 안내하게 된다는 것이다(Seo, 1999).

쉬클로프스키는 일상적 삶과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보통 습관화된 틀 속에 갇혀 있어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Lee, 2014).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배워 말을 했을 때의 처음 감각과 수없이 반복하고 능숙해진 이후 느낀 감각이 전혀 다른 것처럼 결국 감각이 익숙해지면 그것을 맨 처음 경험했던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인식이 습관화되어 버린다. 습관화된 인식이란 익숙해져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곧 ‘무의식적 자동화’이다(Shklovsky, 1917/1965). 습관화, 자동화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무감각해지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대상의 내면적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각의 전환을 강조하거나 새롭게 보이기 위해 대상의 기능을 감추어야 하며(Ham, 1998), 새로운 대상의 창조를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습관적 사유에서부터 벗어나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통해 복합적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Hwang & Lee, 2001). 이처럼 사물의 고정된 사유에서 인식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마저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이다. 즉, 낯설게 하기 기법은 대상을 이상하고 기묘한 것으로 왜곡시켜 이해하기 힘들게 하고 지각의 시간을 연장시키지만, 바로 이러한 지각의 과정 자체가 곧 예술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일상이 예술을 통해 낯설어지지 못하면 무의식적이며 비창조적인 일상에 불과하므로 ‘충격’을 통해 본래의 감각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Kim, 2017).

쉬클로프스키는 이러한 낯설게 하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논문 『기법으로서의 예술』에서 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낯설게 하기의 주요 기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쉬클로프스키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레오 톨스토이(L.N.Tolstoy)나 니콜라이 고골(N.V.Gogol) 등의 작품 해석을 통해 낯설게 하기를 설명하였다.

첫째, 친숙한 대상을 그 이름으로 명명하지 않고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최초로 일어난 것처럼 묘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름에는 다른 것과 구별되도록 그 대상을 규정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확장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Ham(1998)은 낯설게 하기 위한 조건은 그 대상의 이름을 모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쉬클로프스키는 톨스토이의 작품 『수치』에서 톨스토이가 ‘태형(笞刑)’이라는 직접적인 단어 대신에 “법법자들의 옷을 벗기고 육체를 피부으며 엉덩이를 회초리로 친다.” 그리고 “별거 벗은 엉덩이를 채찍질한다” 등으로 표현하였는데,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형식만 바꾼 제사를 통해 낯선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Shklovsky, 1917/1965). 즉, 태형이라는 단어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친숙해서 무덤덤했던 그 행위의 잔인함과 고통이 새롭게 지각되는 것이다. 또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의 전투장면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부활』에서 도시와 공정을 묘사할 때에도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시각으로 표현한 것도 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Seo, 1999).

이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피하고 생소하게 표현하여 자동화된 언어와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고정된 단어나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형화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마치 처음 보는 것과 같은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통찰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정형화된 개념이나 의식,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형화의 탈피’라 볼 수 있다.

둘째, 종교적 이미지를 일상화하여 대상을 이화, 왜곡시키거나 혹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수수께끼처럼 제시하여 대상을 유추하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미지는 대상을 낯설게 만드는 수단이 되며 대상의 이화는 의미론적 전환을 주어 지각을 연장시킨다(Gwon et al., 2001). 쉬클로프스키는 톨스토이가 종교적 관습에 의해 정착된 관용구를 일상적 의미를 지닌 말로 바꾸려 시도한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례용 떡인 ‘성병(聖餅)’을 ‘조그만 밀가루 떡’이라는 일상적 표현으로 대치시켰다(Shklovsky, 1917/1965). 그러나 이 표현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고 대상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이데올로기 자체로부터의 일탈을 체험하게 하였다(Gwon et al., 2001). 또한 에로틱한 이미지를 수수께끼처럼 표현한 사례로 쉬클로프스키는 고골(N.V. Gogol)의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누트 함준(K. Hamsun)의 『꿌주름(La Faim)』 등을 제시하고 있다(Shklovsky, 1917/1965). 함준은 ‘두 개의 하얀 신비

로운 것이 그녀의 블라우스에서 나왔다.’ 와 같이 에로틱한 대상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쉬클로프스키는 이처럼 에로틱한 이미지도 마치 수수께끼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 빈번히 낯설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수께끼는 주제를 상술하거나 묘사하는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로 주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본뜻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Ham, 1998). 즉 수수께끼와 같은 완곡적인 표현은 대상을 특수하게 지각하게 하며 대상이 마치 처음 보여진 것처럼 상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처럼 낯설게 하기 기법은 대상을 일상적인 지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각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의미의 전환을 가져다준다. 낯설게 하기는 대상이 갖는 이미지가 다른 것으로 이화(異化)되거나, 의미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각으로 왜곡되거나, 또는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대상을 빗대어 유추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기법은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을 화자(話者)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톨스토이의 단편 『말 Kholstomer』에서는 늙은 말(馬)이 화자로 말의 시각에서 지각되는 인간의 사유재산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인간 사회

의 소유욕과 부도덕을 폭로하였다(Shklovsky, 1917/1965). 혈통 있는 말의 자연스러운 삶이 불합리한 인간의 존재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말이 화자가 되고 말의 지각으로 사물과 대상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낯설게 느껴진다. 화자의 전환을 통해 소유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능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여주며(Ham, 1998) 기존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게 한다.

인식하는 주체의 지각과 인식되는 대상의 전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동화되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게 된다. 즉, 지식의 기초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이탈하여 기존의 주체와 객체가 전환됨으로써 사고의 전환, 인식의 반전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를 ‘시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쉬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는 어떠한 상황, 환경 혹은 사물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참신한 관점을 부여하였고, 낯익은 것을 낯설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지각력을 증진시켰다. 쉬클로프스키가 작품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사례들을 고찰하면서 Table 1과 같이 ‘정형화의 탈피’,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 ‘시점의

Table 1. Derivation of Defamiliarization Techniques

Concept of Defamiliarization	Core Contents	Technique of Defamiliar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scribe something as seeing the first time without naming (War and Peace, The Kreutzer Sonata, Resurrection by Tolstoy,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Breakaway a limitation of naming Ex-formal realization Breakaway a limitation of concept Induction of insight for the object Dishabituation, unusuality Breakaway from generality 	⇒ Breakaway from standard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Routinize religious images then defamiliarize and distort the subject Suggest as a puzzle to infer the subject (Christmas Eve by N.V. Gogol, Hunger by K. Hamsun,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familiarize image and picture Suggest as a puzzle Analogic and metaphorical expression Complex thinking Change of visual perception 	⇒ Distortion and inference through the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version of narrator: subversion of subject and object of perception (Kholstomer by Tolstoy,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version of subject and object of realization Conversion of meaning Expansion of perception Delay in time Substitution of perception 	⇒ Shift in perspective

전환'을 낯설게 하기의 주요 기법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정형화의 탈피는 낯설게 하기를 위해 일정한 형식이나 틀로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톨스토이가 '태형'이라는 직접적인 단어 대신 '벌거벗은 영당을 채찍질한다'는 표현으로 독자가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고 그 행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 것처럼, 대상이 가진 범위와 개념의 한정성에서 탈피하여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상이나 개념, 행위 등을 처음 보거나, 처음 일어난 것처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다른 대상에 상응하는 부분의 명칭을 갖다 붙이기도 한다. 이는 곧 대상이나 습관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비일상성과 의외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형화(定型化)된 인식에 변화를 주어 지각의 과정을 지연시키고 낯설게 하기를 유도하게 된다.

둘째,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는 대상이 갖는 기존의 이미지를 일상적 지각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각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확장적 의미의 이미지 전환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쉬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는 이미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존재하며 이미지는 사고의 수단이 아니라 대상의 특수한 지각을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Shklovsky, 1917/1965). 이미지를 통한 대상의 왜곡은 복합적 사고에 의해 유발되어 의미론적인 전환을 가져다주며, 이미지의 유추는 속성에 대한 추론을 통한 지각의 연장과 의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는 대상에 대한 전환과 추론을 통해 시각적 인식의 전환과 지각의 시간 연장을 유도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시점의 전환은 사물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낯설게 인식되고 새로움을 찾게 된다. 시점의 전환은 기존의 가치관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며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주제와 객체를 전환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시점의 전환이나 지연을 통해 과거 자신의 경험을 현 시점에 맞게 해석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점의 전환은 시점의 지연이나 전환을 포함하며 이를 통한 의미의 전환이나 시지각적 확장을 통해 새롭고 낯선 감정을 유발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이론을 분석하여 패션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표현과 접목시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패션 브랜드 원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원을 선택한 이유는 원의 디자인이 시크한 포멀 남성복과 캐주얼 감성을 낯설의 미학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한현민이 디자인 작업 시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개념을 염두에 둔다는 것을 인터뷰 등에서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낯설게 하기의 개념은 II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트롱프뢰유,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로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한현민이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의복은 자동화에 의해 애초의 신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디자인의 목적은 복식에서 대상을 친숙하지 않게 만들고 지각 과정을 더욱 곤란하고 길어지게 만드는 것(Yoo, 2016)"이라고 러시아 형식주의가 표방한 낯설게 하기의 주요 개념을 토대로 본인의 디자인을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본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현민 디자이너와 연락을 취하였고, "원의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이론 중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2. 분석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디자인 분석을 통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창의성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낯설게 하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본 후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 철학에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형식주의자로 낯설게 하기 이론을 주창한 쉬클로프스키의 논문 『기법으로서의 예술』을 중심으로 그의 주요 이론을 고찰하였는데, 쉬클로프스키가 문학작품을 통해 예시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 사례들을 읽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식주의 이론을 해석한 관련 단행본(Gwon et al., 2001; Lee, Marion, & Reis, 1965/1986)과 선행연구(Seo, 1999; Ham, 1998; Lee, 2014; Kim, 2017) 등을 참고하였고, 낯설게 하기의 주요 기법을 '정형화의 탈피',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 '시점의 전환' 등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원의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낯설게 하기를 분석하기 위해 2016 S/S부터 2021 F/W 시즌까지 원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총 515점의 컬렉션 사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즌별로 디자이너가 어떻게 디자인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 컨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각 컬렉션의 전반적인 색채, 형태, 소재, 아이템, 스타일 등을 살펴보았다. 패션 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3인이 유형화된 의미나 주제를 정리하면서 각각 낯설게 하기 기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진을 세 가지 주요 기법별로 각 30점씩 총 90점을 선정 후 2인 이상 중복해서 선정한 사진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53점으로 낯설게 하기의 세 가지 주요 기법인 '정형화의 탈피',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 '시점의 전환'을 토대로 원의 디자인에 나타난 낯설게 하기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고, 낯설게 하기 기법을 적용한 원의 컬렉션을 통해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발상을 위한 디자인 표현법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기법의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낯설게 하기 기법은 창의성 표현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출과 표현은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낯설게 하기의 기법인 '정형화의 탈피',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 '시점의 전환'을 중심으로 원의 컬렉션 디자인을 분석하고, 낯설게 하기의 표현 특징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표현법을 살펴보았다.

1. 정형화의 탈피

정형화의 탈피는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며, 패션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구성요소나 원리 등의 보편화된 원칙이나 개념에서 탈자동화시켜 새롭게 보이게 하고 내면적 지각을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패션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본연의 감각을 되찾아 창조적이고 전위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원은 낯설게 하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식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개념을 디자인의 화두로 표현하였다. 2016 S/S 시즌의 컨셉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재인식'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지각하게 하고, 이 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지각의 과정 자체를 창작의 주제로 삼았다. 2016 S/S 컬렉션에 서양화가 한재열 작가와 콜라보

레이션 하여 티셔츠에 뭉개진 듯 표현된 얼굴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려진 대상인 인물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였다(Figure 1). 물감을 뿌리듯 회화적인 감성이 극대화된 아트룩은 인식을 지연시키는 낯선 자극이 되어 인식을 치환하였고, 탈자동화를 통해 신선한 감각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에서는 디자인의 형태적 요소에 해당되는 디테일이나 소재가 지닌 정형화된 기능을 탈피해 새로움을 보여주었다. 디테일의 정형화를 탈피한 사례로는 2019 F/W에 끈처럼 묶는 장식을 테일러드 소매 형태로 표현한 심플한 코트(Figure 2)를 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소매 본연의 기능을 전복시키면서 디자인의 흥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F/W에는 전형적인 테일러드 칼라 안쪽을 로우 네크라인으로 다시 잘라내어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Figure 3)을 선보여 칼라나 네크라인 등 디테일의 정형성을 탈피하고 착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여 원이 지향하는 낯설게 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소재 사용의 보편화된 고정관념을 탈피한 대표적 사례로 팬츠와 재킷 등에 셀비지(selvage)를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셀비지는 원단 가장자리에 있으며 원단을 만든 회사, 제조국가, 혼용률, 두께 등의 정보가 적혀있다. 옷에 달린 태그처럼 원단을 구입할 때 정보를 얻고, 사용할 때는 잘라서 버려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원에서는 대상이 갖는 정형화된 기능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셀비지를 잘라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소재를 사용하여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살려냈다. 2017 F/W에 셀비지를 레터링이나 스트라이프처럼 표현하였고(Figure 4), 셀비지를 장식요소로 덧붙여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다. 셀비지의 활용은 원의 중요한 디자인 시그니처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본래의 기능 전환으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원은 이질적 소재의 병행으로 의외적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정형화를 탈피한 디자인을 여러 시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테일러드 소재로 많이 쓰이는 체크 울 소재를 아웃도어에 사용하여 캐주얼 분위기를 살린 Figure 5는 정장과 캐주얼의 아이템에 따른 소재사용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류용 소재에만 국한하지 않는 파격적인 재료의 실험을 통해 디자인 표현의 폭을 확장시켰고, 비밀상적 범주의 소재를 사용해 유니크하면서도 웨어러블한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2019 S/S에 발표된 발랄한 캐주얼 분위기의 하프코트(Figure 6)는 프린트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닐로 된 해의 가축 사료 포대로 제작된 것이다. 제품정보와 상품명에 채도가 높은 원색의 컬러로 디자인되어 대상의 본래 기능을 숨김으로써 낯설게 하기



Figure 1.
Münn 16 S/S 1
(www.blog.naver.com/munnstudio)



Figure 2.
Münn 19 F/W 1
(www.munnseoul.kr)



Figure 3.
Münn 21 F/W 1
(www.munn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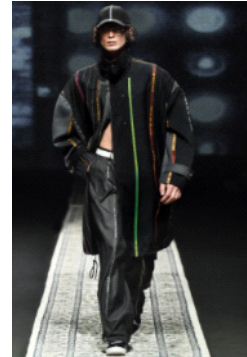


Figure 4.
Münn 17 F/W 1
(www.munnseoul.kr)



Figure 5.
Münn 19 S/S 1
(www.munn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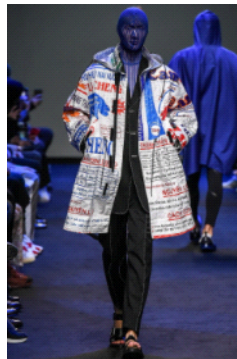


Figure 6.
Münn 19 S/S 4
(www.munn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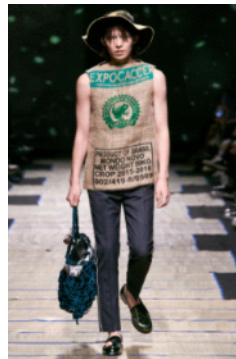


Figure 7.
Münn 17 S/S 3
(www.munn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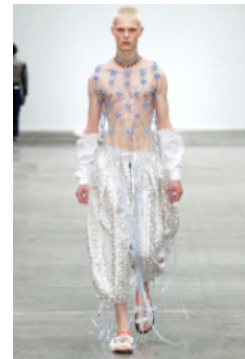


Figure 8.
Münn 20 S/S 4
(www.munnseoul.kr)

를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하게 2017 S/S에 발표된 상의도 커피 생두 자루를 사용한 업사이클링 패션으로 의외적인 재료의 혼용과 소재의 국한성을 탈피한 친환경 패션으로 볼 수 있다(Figure 7). 뮌에서는 2020 S/S에 ‘니트를 실처럼 텐션이 있는 다른 소재로 엮을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투명한 의료용 튜브를 엮어 보트넥 튜닉과 프린지 탑으로 선보였다(Figure 8). 이는 용도가 변한 오브제를 통해 본래의 기능을 박탈하면서 낯선 재료의 실험적 사용으로 소재의 한계를 초월한 아방가르드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재료의 기능 바꿔치기와 소재 사용의 패러다임을 확장시켜 유니크한 아이템으로 표현하면서 인식의 시간을 지연시켰고 새로움을 창조하였다.

뮌의 디자인은 패션디자인의 원리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개념에서 탈자동화시켜 새롭게 보이게 하고 내면적 시각의 지연을 의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뮌의 디자인에서는 ‘인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인식하게 하여 탈자동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움을 지각하게 하는 디자인이 나타났고, 소재, 실루엣, 아이템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도들이 선보였다. 특히 소재 기획에서 비일상적 범주의 독창적 소재로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한 것처럼 소재 사용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한 시도가 특징적이었다.

위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발상의 차원에서 본 정형화의 탈피는 디자인의 요소나 원리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

에서 벗어나 디자인의 과정을 한 번 더 의식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탐구하고 이를 웨어러블하게 가공하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 매치시킬 수 있으며, 칼라의 변형이나 소매의 형태적 해체와 재구조화, 디테일의 과장과 중첩 등 기존 형태에 대한 실험과 재해석을 통해서도 고정관념에 대한 탈피가 가능하다. 또한 기능이 전복된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디자인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2.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

이미지를 통한 왜곡은 대상에 대한 이화를 넘어 시각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며, 이미지의 유추는 대상의 실체에 대한 추론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패션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영감이 되거나 궁극적 표현물이 되는 이미지의 이화와 왜곡을 통해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거나, 유추를 통해 주제를 상상하고 사고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지를 통한 유추는 사물이나 디자인 테마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Im & Park, 2017) 탈자동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지각의 갱신을 이루게 한다.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의 사례로 동서양의 문화적 병치를 통해 낯설게 하기를 시도한 것을 들 수 있다. 뮌은 2017 S/S와 2019 S/S~2020 F/W에 걸쳐 문화가 주는 스테레오 타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동서양 문화와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병치하였고, 동서양의 소재와 아이

템의 믹스매치를 통해 문화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2020 S/S에 한복을 디자인 주제로 한국의 전통 오브제인 ‘갓’에 장식적 디테일을 첨가하였고, 전형적인 서양의 테일러에 사용하는 울 소재를 이용해 한복 바지 형태의 와이드 팬츠를 만들었다(Figure 9). 이처럼 이질적인 동서양의 문화적 이미지를 통한 이화로 참신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한 서양의 입체재단과 동양의 평면재단을 자연스럽게 매치시키는 동서양 의복 구성법의 혼용을 통해 비구조적인 형태의 변형으로 해체적인 감각을 표현하였다. 2019 F/W에는 한복의 갓을 서양복 재킷의 칼라로 왜곡하고 그 재킷을 동양적 소재인 한복의 자카드로 만든 팬츠와 매치시켜 보편적 표현 형식을 지양하였다(Figure 10). 또한 2020 S/S에 선보인 Figure 11는 보편적 테일러드 재킷의 소매를 속이 비치는 동양의 소재인 오간자를 사용하여 동서양의 이미지를 조화시켰고, 소재와 의복 구성의 형태적 혼용을 통해 시각적 인식의 전환과 의외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뮌은 남성복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소재와 디테일, 아이템의 믹스 앤 매치와 동서양의 전형적인 의복 구성법을 병치하는 방식으로 복합적 이데올로기를 보여주었고, 동서양 문화의 이미지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났다.

뮌에서는 디자인의 모티프가 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화와 왜곡을 통해 지각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심상을 표현하였다. 특히 성에 대한 습관적인 인식과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정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2017 S/S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조합을 컨셉으로 남성복 테일러드 재킷 속에 핑크색의 섬세한 블라우스를 매치시킨 앤드로지너스 룩을 선보여



Figure 9.
Münn 20 S/S 1
(www.munnseoul.kr)



Figure 10.
Münn 19 F/W 2
(www.munnseoul.kr)



Figure 11.
Münn 20 S/S 2
(www.munn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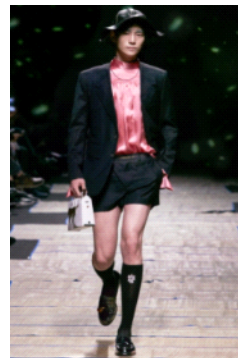


Figure 12.
Münn 17 S/S 2
(www.munnseoul.kr)



Figure 13.
Münn 18 S/S 1
(www.munnseoul.kr)



Figure 14.
Münn 16 F/W 1
(www./blog.naver.com/munn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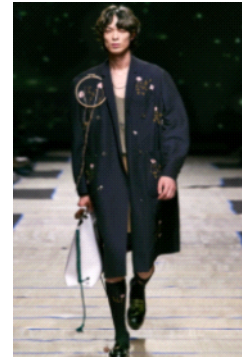


Figure 15.
Münn 17 S/S 1
(www.munnseoul.kr)

소재와 색채의 연상작용을 역 이용해 성의 복합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Figure 12). 2020 S/S 시즌에는 남성복 테일러드의 포켓을 러플로 장식하여 재킷의 구성요소인 포켓을 재인식하게 하면서 여성적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 남성복 디자인을 선보여 성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의 왜곡을 표현하였다. 또한 의복 제작의 완성, 완결된 이미지에 대한 왜곡을 통해 제작과정의 습관적인 상황을 재인식하게 하는 일련의 디자인을 보여주었고, 아방가르드하고 해체주의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테일러드 재킷에 소매는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2018 S/S에 테일러드의 암홀을 변형시켜 테일러드에 필수적인 소매를 떼어내었고, 코트의 뒷부분 없이 칼라만 해체하여 앞부분과 연결시켰으며 시접을 정리하지 않은 채 걸로 보이게 하는 해체 작업을 하였다(Figure 13). 이는 의복의 구성요소인 뒷판과 소매를 의도적으로 결여시킨 비구조적 형태의 디자인이다. 코트의 테일러드 칼라에 스티치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Figure 14는 의복을 만드는 공정 자체를 드러낸 일련의 디자인으로 완결된 이미지에 대한 왜곡을 통해 자동화된 인식을 거부한 해체주의적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뮌에서는 해답을 숨기고 빗대어 말하며 정답을 찾는 수수께끼처럼 대상에 대한 유추를 통해 아이디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선보였다. 2017 S/S 컬렉션에서는 일본의 1930~40년대 감성을 나타내기 위해 오리엔탈 플라워 패턴을 다양하게 변주하며 데님 소재에 매화꽃과 나뭇가지 문양의 수를 놓았다. 또한 재킷 어깨 부위에 자수들을 상징적 모티프로 매달아 놓아 섬세하고 정교한 자수작업의 과정을 유추하게 하는 핵심적인 디테일을 아이템에 활용하여 전

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유추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Figure 15).

이처럼 뮌은 동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템을 통해 이미지를 이화시켜 전혀 새로운 심상을 창출하였고, 동서양의 아이템과 소재 등을 자유롭게 믹스 앤 매치시키며 문화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일탈을 시도하였다. 또한 소재와 색채의 연상작용이나 고정관념을 역 이용해 디자인의 영감이 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화와 왜곡을 표현하였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복시켰다. 즉 전통적 성에 대한 이미지의 왜곡, 완결된 이미지에 대한 사고의 전복을 통해 시각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또한 작업 과정이나 디자인의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 디테일이나 장식 요소를 통해 인식의 과정을 명증하며 이를 통해 지각의 갱신과 탈자동화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뮌의 디자인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발상의 차원에서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를 살펴보면, 소재나 컬러 등의 연상작용이나 고정관념을 활용해 복합적 이미지를 추구하거나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소재와 디테일, 아이템의 믹스 앤 매치와 의복 구성법의 혼용 등을 통해 현대적이고 시크한 감각으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시각적 형태의 왜곡과 전환을 통해 직접적으로 낯설고 새롭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의복 제작과정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해체주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도 가능하다. 또한 작업 과정을 유추하게 하는 특징적인 디테일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유추와 연상을 유도하며 아이디어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도 창의적인 디자인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시점의 전환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의 전환은 주체와 객체의 전환이나 이를 토대로 한 개념의 확장을 의미한다. 화자와 청자가 뒤바뀔 때 대상에 대한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으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된다. 시점의 전환을 통해 패션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지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움을 창출할 수도 있다.

흰은 패션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시점의 전환을 통해 패션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터뷰에서 컬렉션을 구상할 때 도전하고 싶은 개념을 먼저 정한다고 밝힌 바 있고, 그의 작품에 대한 언론의 평가에서도 ‘개념적’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개념적 패션이란 의상의 제작과정과 내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소재와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신개념의 조형언어로(Kwon & Geum, 2007), 진지한 웃을 만들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흰은 패션의 본질,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패턴에서 재단, 봉제, 최종 완성된 옷을 담은 부분까지 옷을 만드는 제작의 전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2020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가먼트 백(garment bag) 디자인이다. 흰은 컬렉션의 피날레에 튜닉으로 변형된 슈트 커버인 가먼트 백을 입은 모델들을 등장시켜(Figure 16) 어떤 옷이 담겨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인터뷰에서 ‘관객들의 예상을 뒤집는 일종의 배반의 재미’라며 ‘관객들이 가먼트 백 안에 옷이 있다고 상상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Park, 2019).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 패션이 단지 외형을 꾸미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벗어나 상상하

고 꿈꾸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패션에 대한 확장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주체와 객체의 전환은 시점의 전환에 있어 접근하기 용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19 S/S에는 보온 기능이 전혀 없는 오간자 소재를 걸감으로 사용하면서 심미성을 위해 패브릭 꽃으로 가득 채운 트랜스퍼런트 패딩(Figure 17)을 선보였는데, 패딩에서 걸감은 추위를 보완하기 위해 곁에 드러나는 주체라면 충전재는 보온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물이지만 곁감에 쌓여 보이지 않는 객체와 같은 존재이다. 흰은 보이지 않으면서 따스함을 주는 역할을 하는 충전재를 아름답고 화려한 꽃으로 꾸미면서 형태의 과장을 시도하였고 전면에 부각시켰다. 곁면에 내세운 패딩은 보이지 않던 객체가 주체로 전환되면서 주체로서의 독자적 역할을 하게 되며, 패딩의 충전재는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며 새롭게 실루엣을 창출하였다.

또한 흰에서는 디자인 기획에 있어 소재나 아이템의 용도 전환을 통해 기능의 전복을 유도하였고 일반적 속성을 비틀어 새롭게 표현하였다. 2020 F/W에 남성 정장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넥타이에 주목하여 여러 개의 긴 넥타이를 엮어 프린지 탑이 되는 코트를 제작하여 넥타이를 남성 소품에서 코트로 의복의 용도를 치환시켰다(Figure 18). 2019 S/S에 선보인 Figure 19는 축구 유니폼을 해체하고 상하를 도치시켜 운동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재조합한 작품으로, 착용 방법의 유연성을 강조해 아이템의 용도 전환을 시도하고, 보는 이에게 정서적 낯설음과 함께 축구에 대한 열정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신선하고 위트있는 디자인이다.

이와 같이 흰은 ‘가먼트 백’에서 볼 수 있듯이 시점의 전



Figure 16.
Münn 20 S/S 3
(www.munnseoul.kr)



Figure 17.
Münn 19 S/S 2
(www.munn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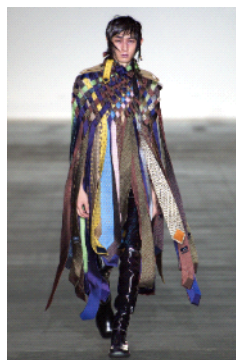


Figure 18.
Münn 20 F/W 1
(www.munnseoul.kr)



Figure 19.
Münn 19 S/S 3
(www.munnseoul.kr)

Table 2. Defamiliarization expressed in the fashion of Münn

Techniques of defamiliarization	Defamiliarization in the fashion of Münn	Expression method of design	Cases of fashion
Breakaway from stereo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realization of perception • Application of Selvage • Parallel production of defamiliarizing material • Application of materials in non-routine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 • Circumscribed breakaway of materials for clothing (medical tube) • Breakaway of stereotype for using materials • Freewheeling materials (using salvage) • Form • Emphasize atypical form (expression of deconstruction) • Item • Creating new items by using original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ication of selvage (Figure 4) • Feedbag Coat (Figure 6) • Coffee bean bag top (Figure 7) • Top made with medical tube (Figure 8)
Distortion and analogy through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eakaway stereotype of eastern and western images • Distortion of traditional sexual mages • Distortion of completed images • Induction about the work prog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bric & color • Expression of sexually mixed image • Form: • Deformation and disintegration of nonstructural form • Item • Combination of items from different images • Using decorative el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uxtaposition of eastern and western items (Figure 9, 10, 11) • Men look introduced feminine element (Figure 12) • Deconstructive design (Figure 13, 14) • Jacket made with tambour (Figure 15)
Transition of view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ceptual expansion of fashion • Conversion of subject and object • Conversion of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 • Change of structure and usage • Creating new silhouettes by exaggeration of form • Item • Combination of items from different culture • Expansion of intentional concepts using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rment bag (Figure 16) • Transparent padded coat (Figure 17) • Tie coat (Figure 18) • Football vest top (Figure 19)

환을 통해 패션의 본질,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로 패션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의복 제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통해 패션에 대한 디자이너의 철학을 전달하였다. 또한 속이 보이는 투명한 패딩을 통해 의복 구성의 주체와 객체를 전복시키고 화려한 컬러의 꽃장식 충전재를 장식 요소로 부각시켰다. 이 밖에도 재료나 아이템의 용도 변경이나 착용 방법의 전환 등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확장을 유도하였다.

디자인 발상의 관점에서 시점의 전환을 살펴보면, 패션에서는 창작의 주체인 디자이너와 창작물을 감상, 혹은 소비하는 객체인 소비자의 주객이 전도될 때 패션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예술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특정 아이템을 이용한 의도적인 개념의 확장이나 형태의 과장 등을 통해 극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또한 제작 과정에 대한 내적 의미를 강조하고 객체의 시점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지각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 밖에 독창적 소재의 사용으로 착용 방법의 유연성을 강조하거나, 기존의 구성과 용도를 전환한 형태의 표현 등을 통해서도 시지각적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뮌의 디자인에 나타난 낯설게 하기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패션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표현법과 대표적인 패션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한 낯설게 하기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낯설게 하기를 디자인 철학으로 표방하고 있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민의 디자인을 분석하여 디자인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표현 방법을 고찰하고 디자인 발상의 표현법을 제시하였다.

쉬클로프스키는 대상에 대한 습관화된 인식에서 벗어난 탈자동화를 통해 인식을 회복하고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고, 인식을 지연시킴으로써 지각의 과정 자체가 곧 미학의 목적임을 주장하였다. 낯설게 하기는 대상이나 관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여 지각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대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

쉬클로프스키의 논문 『기법으로서의 예술』을 중심으로 그의 주요 이론을 고찰하여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정형화의 탈피’는 일정한 형식이나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대하며 비일상성, 의외 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패션디자인의 경우 구성요소나 원리 등의 보편화된 개념에서 벗어나 본연의 감각을 되찾고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재인식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는 대상에 대한 전환과 추론을 통해 시각적 인식의 전환과 지각의 연장을 유도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의 영감이 되는 이미지의 이화와 왜곡을 통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거나 유추를 통해 사고를 확장해 가는 것을 말한다. ‘시점의 전환’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전복을 통해, 혹은 주체와 객체의 전환을 통해 사고의 전환과 인식의 반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패션에서는 창작과정의 주체와 객체의 전환을 통해 패션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가능하다.

민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낯설게 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형화의 탈피’는 인식에 대한 재인식을 주제로 지각의 과정을 디자인 컨셉으로 표현한 디자인과 디테일이나 소재의 정형화된 기능을 탈피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이질적 소재의 의외적 활용이나 비일상적 범주의 소재를 웨어러블한 아이템으로 표현한 사례 등이 해당되었다. 둘째,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는 동서양 이미지의 스테레오타입을 탈피한 동서양 의복 구성법, 소재, 디테일의 자유로운 병치와 문화적 재구성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성에 대한 이미지의 이화와 비구조적인 형태로의 해체 및 장식적 아이템을 통해 작업과정을 유추하게 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셋째, ‘시점의 전환’은 패션의 기능과 본질에 대한 개념을 전복시키는 개념적인 디자인과 소재나 실루엣을 이용해

주체와 객체가 전환된 디자인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기능과 일반적인 속성을 전복시킨 재료나 아이템의 용도 전환을 통해 유니크하면서 아방가르드한 감각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낯설게 하기를 위한 디자인 표현법을 살펴보면, 첫째, ‘정형화의 탈피’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요소나 원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의 탈피가 중요하며, 소재의 용도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이나 형태, 디테일 등에 대한 해체와 재구조화 등이 요구된다. 둘째, ‘이미지를 통한 왜곡과 유추’를 위해서는 소재나 컬러 등의 연상작용을 활용한 복합적 이미지의 표현이나 다양한 문화권의 소재와 디테일, 아이템의 혼용을 통한 창의적 전환과 왜곡, 유추와 연상을 유도하는 디테일의 활용 등이 가능하다. 셋째, ‘시점의 전환’은 주객이 전도된 퍼포먼스, 아이템을 통한 개념의 확장, 착용방법의 우연성 강조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념적인 옷을 만들고자 하는 실험정신과 새로운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패션에 담아내고자 하는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이 낯설게 하기를 통해 패션의 창의성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 디자인에 있어 낯설게 하기 기법이 디자인의 원리나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지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으며, 색채, 소재, 형태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습관적인 지각을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민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낯설게 하기를 패션 디자인에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본 연구가 디자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표현법을 제시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기획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2016). Die Postmoderne und die deutsche Literaturtheorie - Rückblick auf die Postmoderne. *Journal of the Koreanische Kafka Gesellschaft*, 36, 209-227.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84324>
- Ahn, S., & Chung, J. (2011). A study: Body painting utilization of Trompe-L'oeil methodology in advertisement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12(3), 283-296.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66382>

- Cho, J., Cho, K., & Hong, J. (2016). Creativity for idea generation in the course of university design education.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5(4), 73-81. doi:10.21195/jidr.2016.15.4.006
- Choi, B. (2021). A study on the meaning of "Newtro" by 'Defamiliarization'. *Global Cultural Contents*, (46), 1-14. Retrieved from <https://scholar-kyobobook-co-kr.libproxy.chungbuk.ac.kr/article/detail/4010028175686>
- Defamiliarization. (n.d.). *Oxford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Retrieved from <https://www.englishcube.net>
- Gwon, C., Kim, H., & Lee, D. (2001). *Russian formalism*.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 Ham, Y. (1998). "Defamiliarization" technique of defamiliarization. *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10(2), 629-652. Retrieved from <https://cbtnul.chungbuk.ac.kr/search/DetailView.ax?sid=1&cid=2433135>
- Hwang, H., & Lee, D. (2001). As the focus two interpretation method of Defamiliarization = A study on the device in the architecture through 'Defamiliarization'.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1(2), 733-736.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libproxy.chungbuk.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357653>
- Im, M., & Park, J. (2017). A study on idea conception method of creative fashion design -Focused on NM Method (T type) & Syne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1(1), 71-83. doi:10.5850/jksct.2017.41.1.71
- Jang, H., & Hur, B. (2009). A study on the de'payments characteristics in modern architecture -In light of Rene Magritt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8(6), 96-103. Retrieved from <https://scienceon-kisti-re-kr.libproxy.chungbuk.ac.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911764892019&SITE=CLICK>
- Jang, J. I., & Lee, Y. (2018). A study on Trompe l'oeil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6(5), 764-776. doi:10.29049/rjcc.2018.26.5.764
- Kim, B. (2010). A study on unexpected expressions in brand design using the "Defamiliarization" techniq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16(3), 61-73.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libproxy.chungbuk.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42230>
- Kim, G. (2006). 'Unerfllte Erwartung' als Strategie der Verfremdung: in Bezug auf das Motiv vom Starken und Weichen. *Bertolt Brecht und das moderne Theater*, (14), 7-26.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91944>
- Kim, S. H. (2017). Russian formalism: The origin of revolutionary literary theory. *Journal of the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57), 7-35. doi:10.24066/russia.2017..57.001
- Kim, S. Y. (2010). A study of Trompe L'oeil expressions in modern fash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ose since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4), 597-605. Retrieved from <https://scienceon-kisti-re-kr.libproxy.chungbuk.ac.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023850760375&SITE=CLICK>
- Kim, T. (2006). Bertolt Brecht's epic theater and music. *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9(1), 117-138.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891774>
- Kim, Y. (2012).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épaysement found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3(3), 73-86.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76209>
- Kwon, H. (2003). The recognition of postmodernity in theater and painting: The cases of Samuel Beckett and Rene Magritte. *Journal of Modern English Drama*, 16(3), 1-40.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libproxy.chungbuk.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699311>
- Kwon, J., & Geum, K. (2007). A study on the contemporary fashion based on characteristics of

- conceptual a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7), 70-83. Retrieved from <https://scienceon-kisti-re-kr.libproxy.chungbuk.ac.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515338946176&SITE=CLICK>
- Lee, E. (2011). *Research on multi brand shop façade design by the 'Defamiliarization' expression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Soo Jung]. (2014). Understanding of Defamiliarization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2), 145-168. Retrieved from <https://kiss-kstudy-com.libproxy.chungbuk.ac.kr/thesis/thesis-view.asp?key=3255218>
- Lee, S. J. [Sun Jung]. (2018). Re-recognizing familiar urban space through Defamiliarization -Focusing on my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3, 187-194. doi:10.17548/ksaf.2018.03.30.187
- Lee, T., Marion J, & Reis, T. (1986). *Russian formalist theory of literature*. (The Institute of Literature and Social Studies, Trans.). Seoul: Cheongha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965).
- Münn 16 F/W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munnstudio/look#10>
- Münn 16 S/S 1. (2015). [Photograph]. *Naver Blog*. Retrieved September 4, 2021, from <https://blog.naver.com/munnstudio/look#7>
- Münn 17 F/W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7fw.html>
- Münn 17 S/S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7ss.html>
- Münn 17 S/S 2.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7ss.html>
- Münn 17 S/S 3.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7ss.html>
- Münn 18 S/S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8ss.html>
- Münn 19 F/W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9fw.html>
- Münn 19 F/W 2.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9fw.html>
- Münn 19 S/S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9ss.html>
- Münn 19 S/S 2.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9ss.html>
- Münn 19 S/S 3.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9ss.html>
- Münn 19 S/S 4.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19ss.html>
- Münn 20 F/W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20fw-lfwm.html>
- Münn 20 S/S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20ss-lfwm.html>
- Münn 20 S/S 2.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20ss-lfwm.html>
- Münn 20 S/S 3.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20ss-lfwn.html>
- Münn 20S/S 4.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20ss-sfw.html>
- Münn 21 F/W 1. (n.d.). [Photograph]. *Münn*. Retrieved from <http://www.munnseoul.kr/collection/collection22fw-mfwm.html>
- Myeong, E. (2005). *A study on the expression tendency of Mix & Match styles: Focused on contemporary expression of 'Defamiliar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R. (2019, July 15). A strange feeling of tension

- when you're dealing with strangers. *Heraldcorp*. Retrieved October 13, 2021, from <http://news.heraldcorp.com>
- Robert, R., & Michele, R. (2007). *Spark of genius*. (J. Park, Trans.). Seoul: Eco's Library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 Seo, H. (1999). Shklovsky's Defamiliarization. *Journal of the Research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3, 253-280.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bproxy.chungbuk.ac.kr/search/download/FullTextDownload.do?control_no=3b208b1311dd46ceffe0bdc3ef48d419&p_mat_type=1a0202e37d52c72d&url_type=&orgcode=863532d4ecea7d8
- Shklovsky, V. (1965). *Russian formalist criticism*. (T. Lee., J. Marion., & Reis, Trans.). Kearne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7).
- Suh, S., & Kim, Y. (2011). Creation through the Distancing Effect (Verfremdung) in the Fashion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4), 14-23. Retrieved from <https://scienceon-kisti-re-kr.libproxy.chungbuk.ac.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121559392792&SITE=CLICK>
- Tzvetan, T. (1997). *Theorie de la litterature*. (C. Kim, Tran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Won, S. (2016, October 17). Interview by Münn. *Newstomato*. Retrieved October 15, 2021, from <http://www.newstomato.com>
- Yoo, J. (2016, March 28). Münn. *Fashion n*. Retrieved October 14, 2021, from <https://m.post.naver.com>

Received (March 1, 2022)

Revised (July 6, 2022; August 12, 2022)

Accepted (September 17, 2022)